



철 박물관 디지털 BOOK 프로젝트



내가 만드는 철 이야기!





철 박물관
디 지 털
B O O K
프로젝트



내가 만드는
철 이야기!



"가족의 이야기를
박물관 도록에 담다."



목차



- 4 펴내는 글
- 5 프로그램 소개
- 6 철 물건 표현하기

- 10 가위_김단희
- 14 가위_이지우
- 18 가위_정아인
- 22 쇠절구_이미숙
- 26 채망_김나정
- 30 망치_이현승·이현석
- 34 저금통_한운우
- 38 팽과리_김은주



펴내는 글

‘내가 만드는 철 이야기’를 펴내며

2021년 20회를 맞은 철문화체험교실, 그 과정과 결과를 담은 ‘내가 만드는 철 이야기’를 펴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철문화체험 교실 참여자의 주변에서 시작해 하나하나 모아졌습니다. 코로나19로 박물관 방문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시도한 본 프로젝트는 모든 과정이 온라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참여자의 일상적인 공간에서 발견한 철로 만들어진 물건의 이야기라는 점이 큰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과정과 결과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박물관의 시도이자 철박물관이 박물관 이용자를 더 의미 있게 만나고자 하는 도전이었습니다.

디지털 BOOK으로 만들어진 ‘내가 만드는 철 이야기’는 프로그램 참여자와 함께 만들어낸 박물관의 소중한 기록입니다.

이제 이 기록이 더 멀리, 더 많은 이들에게 공유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박물관 관장 장인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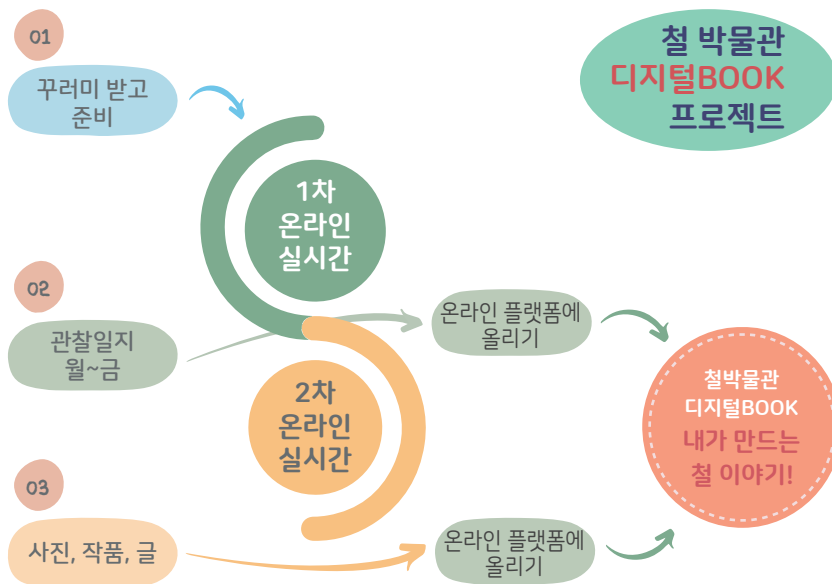
프로그램 소개

철박물관 디지털BOOK 프로젝트

1차 _ 2021. 12. 19.(일) | 2차_ 2021. 12. 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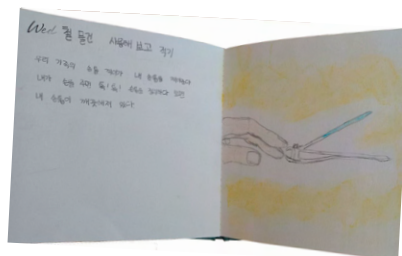
철반 11:00-12:00 | 문반 14:00-15:00 | 화반 16:00-17:00

프로그램은 참여자 주변에서 철로 만들어진 물건을 찾고,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발견한 철 물건을 관찰하고, 다르게 보고자 다양한 재료와 방법으로 표현하면서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박물관에서 수집했고, 참여자의 철 물건과 박물관 유물을 함께 엮어 디지털 BOOK으로 펴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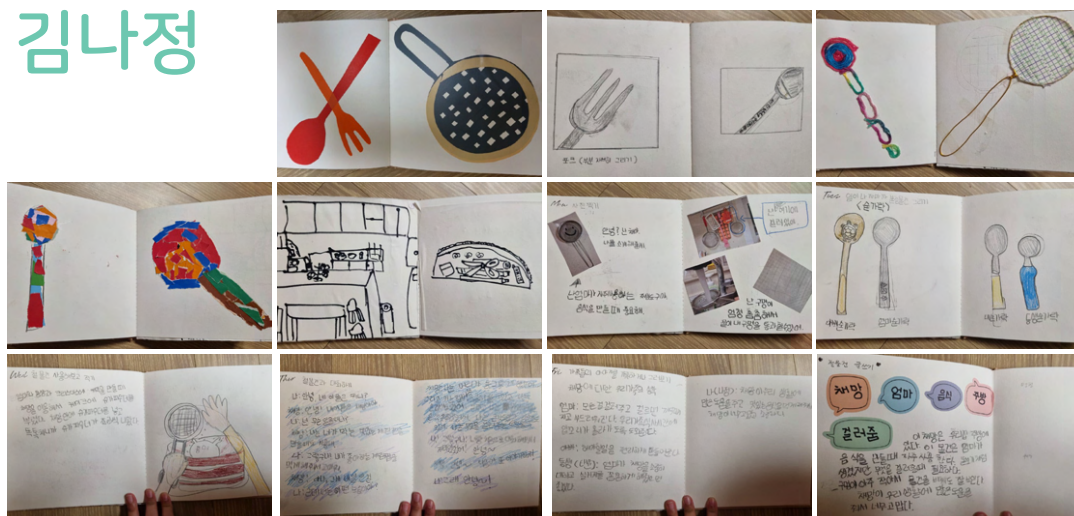


큐알코드를 찍어 영상을 확인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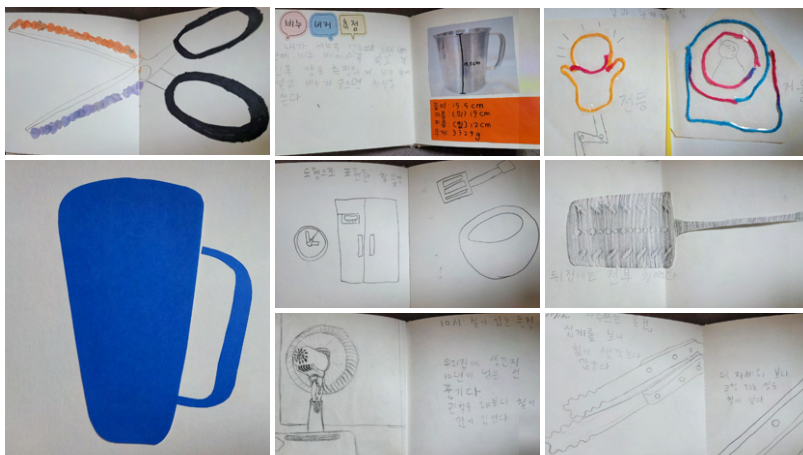
김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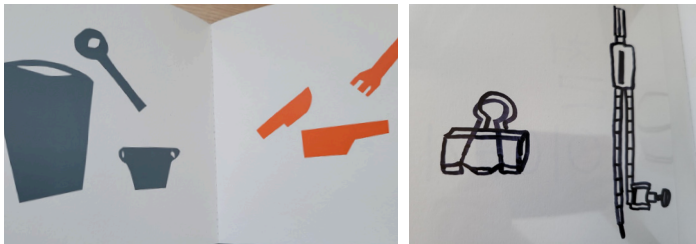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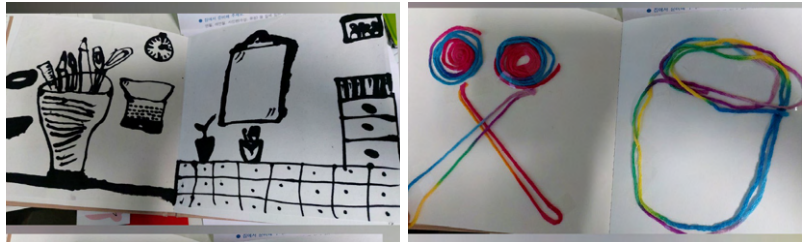
김나정



김동하



박수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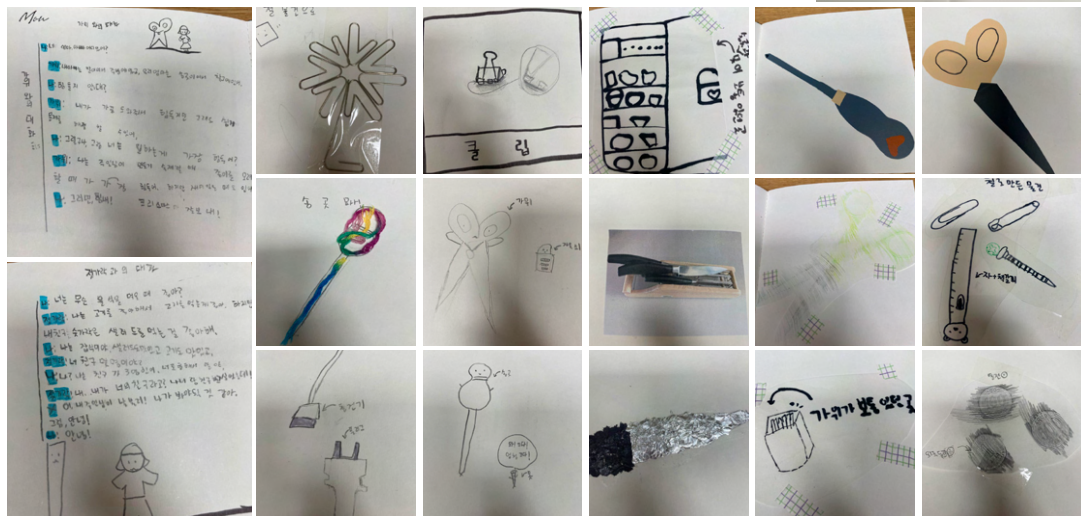
박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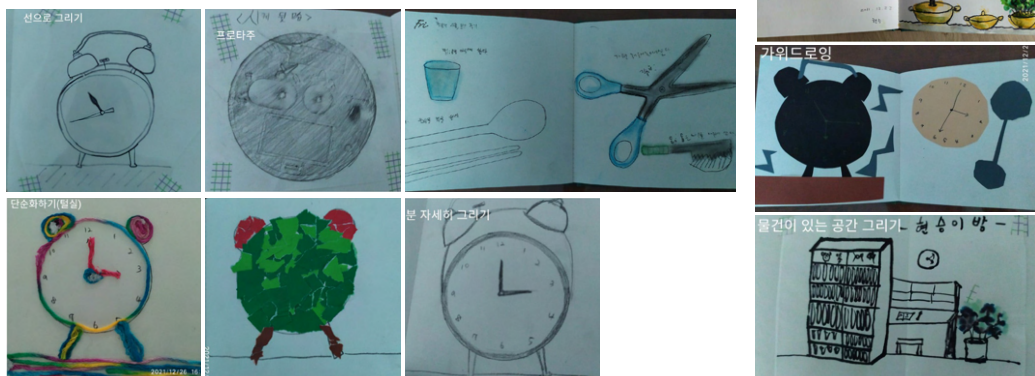
왕민협



이지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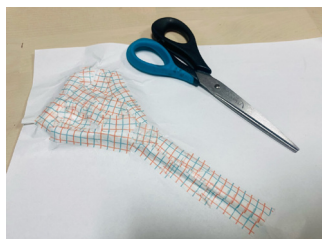


이현승·이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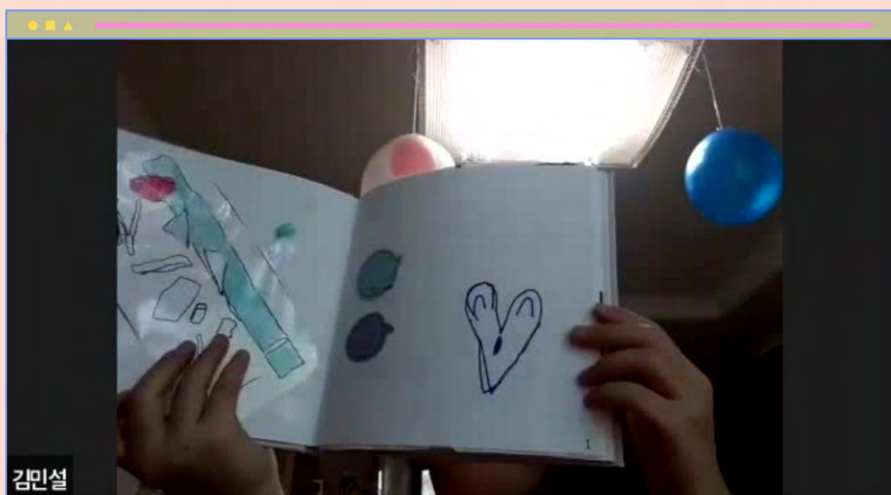


정아인



한윤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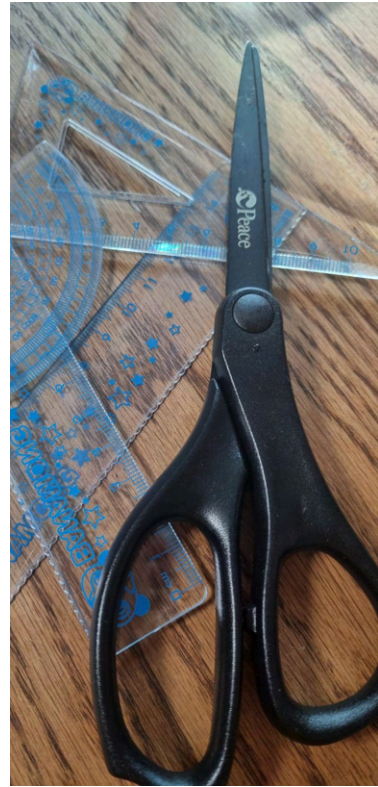




가위



김단희



옛장수가 들고 다니는 커다란 가위이다. 옛장수는 가위를 팔랑거리는 헛가위질을 통해 소리를 내 자신이 왔음을 알리며 노래를 불렀다. 옛가위는 자르기 위한 용도보다 옛 끝을 쳐서 엿을 떼어내거나 큰 소리를 내기 위한 것으로 날이 없고 크기가 큰 특징이 있다.

철 988193



명칭 : 옛가위

재질 : 철

길이48cm, 너비8.4cm, 두께0.37cm, 무게2.7kg

입수경로 : 증평대장간 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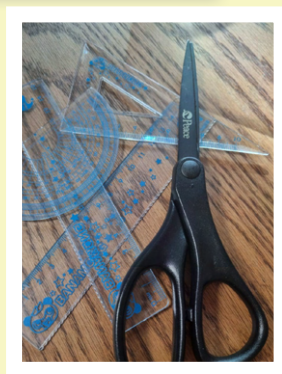
입수시기 : 1998. 09. 10

“내가 공부할 때 동생이 가위로 종이를 자르면

내 소중한 물건일까봐 마음이 철렁해”

전체가 검은색이고 길쭉하며 손잡이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가위 날에
'평화'라는 회사 로고가 각인 되어있다. 종이 등을 자를 때 사용한다.

철문화_김단희20211231



이름 : 필통 안에 들어가있는 가위

재질 : 철과 플라스틱

크기 : 길이17cm, 폭:8cm

제조사 : 평화

우리 집에 온 년도 : 2018





가위



이지우



옛장수가 들고 다니는 커다란 가위이다. 옛장수는 가위를 팔랑거리는 헛가위질을 통해 소리를 내 자신이 왔음을 알리며 노래를 불렀다. 옛가위는 자르기 위한 용도보다 옛 꼴을 쳐서 엿을 떼어내거나 큰 소리를 내기 위한 것으로 날이 없고 크기가 큰 특징이 있다.

철997177



명칭 : 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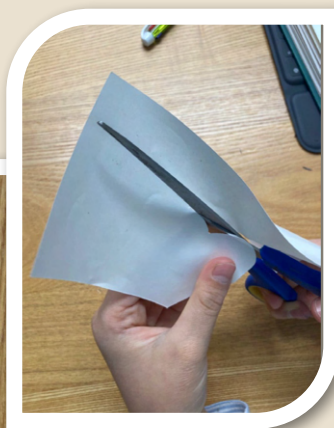
재질 : 철

길이 : 20.5cm, 두께0.23cm, 무게 74.5g

입수경로 : 기증

이 가위는 3년 전 우리 가족이 샀다. 이 물건은 무엇인가를 자를 때 사용한다.
칼과 비슷한 용도다. 나는 보통 색종이를 자를 때 사용한다.

철문화_이지우 20211230



이름 : 필통 안에 들어가있는 가위

재질 : 철과 플라스틱

크기 : 길이17cm 폭:8cm

제조사 : 평화

우리 집에 온 년도 : 2018





가위



정아인

옷감을 자를 때 사용하는 재단가위이다. 재단가위는 다듬기와 자르기를 할 때 사용한다. 가위는 끝의 맞물림이 좋고 사용자의 손에 알맞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

철 993057



명칭: 가위

재질: 철

크기 길이 25.8cm, 두께 0.5cm, 무게193.5g

무게: 193.5g

입수경로: 구입

입수시기: 1998. 08. 28.

우리집 가위는 자주 보지 못했음에도 낯설지 않은 디자인이다. 대부분의 가위는 우리집 가위처럼 손잡이가 고무로 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집 가위는 두 부분의 색이 다르다. 그만큼 고무의 성질을 잘 살리면서도 철로 된 날 부분과 잘 어울린다는 느낌을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난 우리 집 가위가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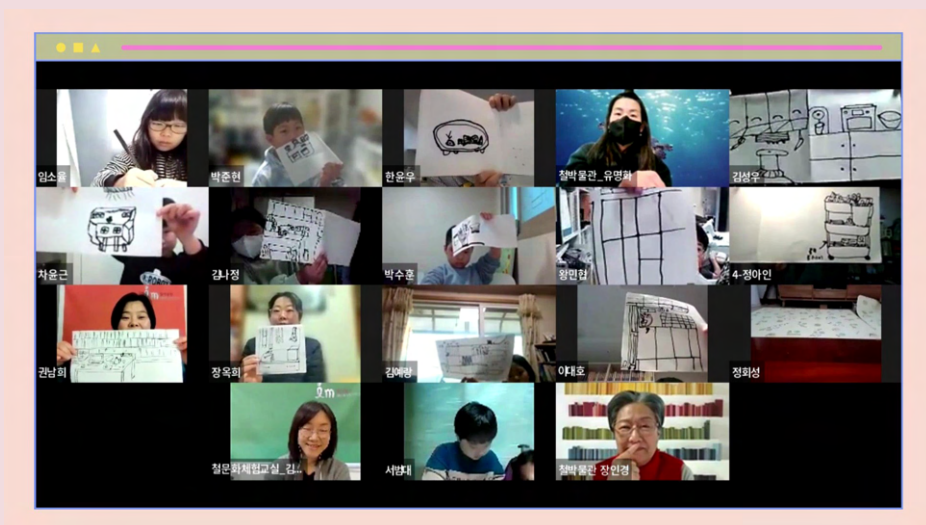
학교에서 하나뿐인 가위를 잃어버리고 나서 새 가위로 이 가위가 왔다. 처음에는 손잡이 부분이 너무 두꺼워서 조금 불편했는데 지금은 손에 잘 익었다.

이 가위는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 가위이기도 하다. 내가 어느 행사에 미술작품을 출품해야 하는 때가 있었는데 이 가위로 종이를 자르고 붙이니까 멋진 작품이 완성되어서 내 작품이 전시된 때가 있었다. 이만큼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가위이지만 우리집 가위만큼은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난 우리집 가위가 좋다.

철문화_정아인20220101



이름 : 가위
재질 : 철, 고무
크기 : 16.5cm
제작사 : 독일 (Maped)
우리 집에 온 시기 : 2019년 겨울





쇠절구



이미숙



절구는 절구통과 충격을 가하는 공이로 이루어져있다. 절구는 나무나 돌 혹은 쇠로 만들며 재료에 따라 나무 절구, 돌절구, 쇠절구 등으로 부른다. 절구통의 재료에 따라 공이의 재료를 달 리하기도 하였으며 절구의 재료에 따라 사용 용도를 구분 짓기도 하였다.

철 993081



명칭 : 절구

재질 : 철

[절구] 높이23.9cm, 지름26.9cm, 바닥지름 15.1cm, 두께5cm, 무게6.8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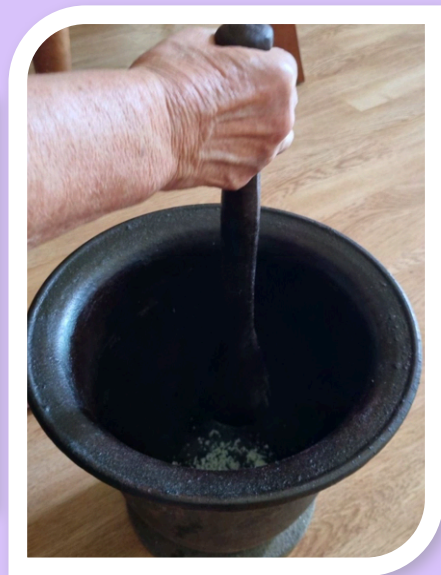
[공이] 길이35.3cm, 너비 5.4cm, 무게1.6kg

입수경로 : 경기도 구입

철박물관에 우리집 쇠절구를 소개하고 싶다. 유년시절 쇠절구 기억 소환! 쇠절구는 내가 6~7살때 항상 우리집 마루에 무겁게 자리잡고 있었다. 모두 발에 일 가시고 동네 오빠랑 꽃방아 찢으면서 놀다가 손가락을 다쳐 왼쪽 손가락 다친 적도 있다. 내가 살던 고향은 충주 미면 설운리 "햇골"이라고 불리던 곳으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골짜기 라서 이름이 붙여졌다고 했다. 우리엄마는 24살에 시집와 1년 후 충주 재래시장 철물점 에서 20kg이 넘는 쇠절구와 자루를 구입하셨다. 우리집 5남매와 가족의 먹거리 장만에 사용했던 소중한 도구이다. 우리엄마는 쇠절구에 갓 발효한 청국장을 찢어서 뚝배기에 보글보글 끓여 주셨다. 그 때 우리 엄마의 손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청국장 맛을 더 맛있게 해준 쇠절구와 자루는 차가운 철로 만들어 졌지만, 내 기억 속에는 정말 따뜻하고 고맙다.겉은 살짝 녹이 있고, 안은 엄마가 기름으로 잘 닦아서 관리하여 46년이 지난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글 : 이미숙, 손 출연 : 심경순

철문화_김나정20220101



이름 : 쇠절구

재질 : 쇠(철)

크기 : [절구] 지름 30cm, 높이 24cm [자루]-길이 36cm, 높이 5cm

제작사 : 한국(충주재래시장 철물점)

우리 집에 온 시기 : 1975년(46년)





채망



김나정



서울에 위치한 청계상공사에서 1998년 9월에 제작한 원형 표준체로 체 눈이 180 μ m이다. 입자 의 크기를 선별하는 망을 체라고 하며, 체의 눈(망의 구멍 크기)을 법령 또는 표준국에 의해 규격화된 체를 표준체라고 한다.

철 140701



명칭 : 체

재질 : 동합금

크기: 높이6.0cm, 지름21.2cm

입수경로 : (주)코베이 구입

입수시기 : 2014. 03. 22

이 체망은 우리집 주방에 있다. 이 물건은 엄마가 음식을 만드실 때 사용한다. 돈보기처럼 생겼지만 무엇을 걸러줄 때 필요하다. 구멍이 아주 작아서 물건을 비춰도 잘 보인다. 체망이 우리 생활에 많은 도움을 줘서 나는 체망이 너무 소중하고 고맙다.

글: 김나정, 촬영: 나정 엄마(이미숙), 보조출연:김태윤

철문화_김나정20220101



이름 : 체망

제작사 : 모름(인터넷 구입)

재질 : 금속

크기 : 길이 25.5cm, 지름12cm, 높이3cm

우리 집에 온 시기 : 2015년도





망치



이현승·이현석



달구어진 쇧덩이를 모루 위에 올려놓고 두드리거나 늘릴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긴 자루는 내려치는 힘을 보강하기 위함이다.

철9880158



명칭 : 망치(대장간망치)

재질 : 철, 나무

크기: 길이79.7cm, 너비20.2cm, 무게4kg

입수경로 : 증평대장간 구입

입수시기 : 1998. 09.

우리 집 똑딱이 해머는 구석기시대부터 현재까지 거듭 발전을 하면서 사용되었던 도구로 2018년 현승, 현석이 집으로 오게 되었다. 손잡이는 나무로 되어있고, 못을 박거나 빼는 부분은 금속으로 되어있어 만지면 차갑고 단단하며 무겁다. 내가 2020년도에 냄비 화분에 구멍을 뚫을 때 사용 되었던 망치와 못. 내방 액자, 시계를 걸때 필요한 망치와 못, 나무에 박혀있는 못을 빼주는 망치, 3년이 지났어도 모양이 변하지 않았다. 요즘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가끔 내게 필요한 친구이다.

글 : 이현승, 촬영 : 이순원, 손촬영 : 이현석

철문화_이현승/이현석 20211226



명칭 : 똑딱이 해머

재질 : 금속, 나무

크기 : 전체길이 30cm, 머리 지름 3.5cm

제작(사) : 한국

우리집에 온 시기 : 2018년도





저금통



한윤우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에서 제작 및 발행한 기념 저금통으로 측면에 '우리의 미래 철강이 열어 갑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철(번호없음)



명칭 : 저금통

재질 : 철

크기 : 높이10cm, 지름6.5cm, 무게60g

입수경로 :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

입수시기 : 미상

이 저금통은 스테고사우루스 모양이고 뒷면이 울룩불룩합니다. 위쪽에 동전 넣는 곳이 있고 자물쇠로 잠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지면 차갑습니다. 2019년쯤 안성 할머니 댁에 갔다가 오는 길에 천안 공룡 식당에 가서 식사하고 기념품으로 샀습니다. 예전엔 지우개를 넣는데 사용했는데 지금은 동전을 넣습니다. 이 물건이 무거워지면 기분이 좋습니다.

글: 한윤우, 촬영: 노경희

철문화_한윤우 20211226



이름 : 스테고 저금통

재질 : 철

크기 : 가로 17.6 cm, 세로 12.7cm

우리 집에 온 시기 : 2019년에 공룡 식당에서 구입





꽹과리



김은주

동그란 원형 낫쇠를 나무 막대로 쳐서 선명하고 경쾌한 “뽕뽕” 소리를 내어 연주한다. 뽕과리를 다루는 사람 중 가장 뛰어난 사람이 상쇠 역할을 하여 농악대를 지휘한다.

철 051501



명칭 : 뽕과리

재질 : 동합금

크기 : [뽕과리] 너비21.5cm, 두께0.2cm, 무게572g

[채] 길이26cm, 무게42g

입수경로 : 미상

입수시기 : 미상

오빠가 쓰던 것이고 나와 동생도 좋아하고 자주 쓴다.
무형 문화재 갈색 점이 있다. 구멍이 있다. 만지면 차갑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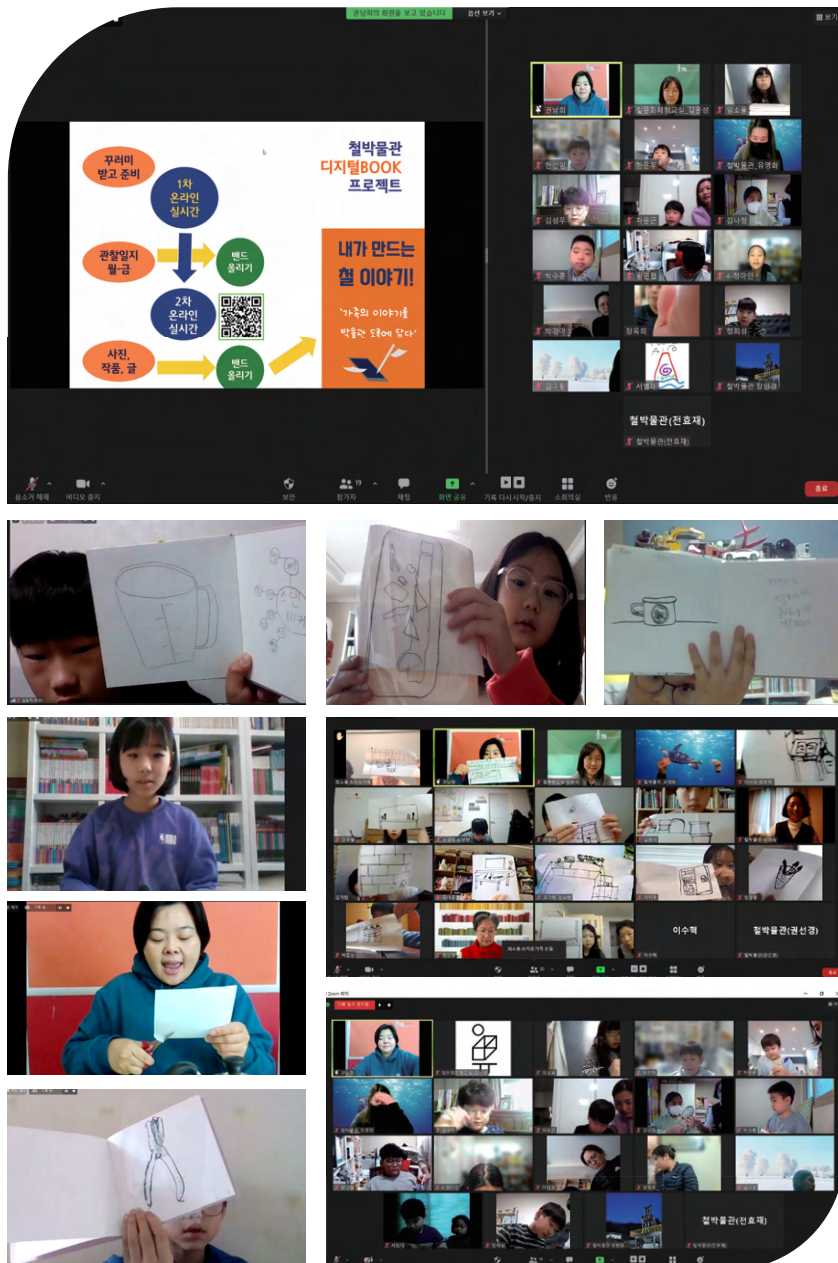
철문화_김은주 20211226



이름 : 팽과리
재질 : 유기
크기 : 지름 15.5cm
제작사 : 이종덕
구입처 : 담양 죽산매구
우리 집에 온 날 : 2017년

제 20주년 철문화체험교실 가족프로그램





철박물관 디지털BOOK 프로젝트
내가 만드는철이야기

주 최 철박물관
기획·제작 철박물관, 뮤지엄교육연구소
발행일 2022년 1월
발행처 (재)세연문화재단
주소 (27611)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영산로 360 철박물관
홈페이지 www.ironmuseum.or.kr
발행일 2022. 01.



© 철박물관

이 책은 철박물관 2021 철문화체험교실 결과 도록입니다.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을 포함한 모든 내용은 저작권자와 협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